

■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지원심의 총평

- 사업유형 :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 회의일시
 - 5. 17(화) 14:00~17:00 /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 5. 24(화) 10:00~17:00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 : 고태암, 김민정, 김유노, 김재희, 박인선, 손성래, 이승규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사업은 자율주제 또는 기존 우수 원작을 활용하여 오페라 대본 및 음악 개발을 하는 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본 심의의 취지는 이러한 사업목적 아래, 공연되지 않은 작품을 통해 작곡가와 극작가의 창작오페라에 대한 아이디어와 창작활동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23개의 작품이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사업에 지원 신청하였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심의 방법을 통해 지원신청 작품을 단계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는 필수제출 서류가 미비한 1개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회 동의에 따라 행정결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1차 서류심사에는 지원대상 사업에 부합되지 않거나 창작활동 지원금에 대한 타당성이 없는 작품은 후순위로 두었으며, 크게 3가지로 구분된 심의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청자의 예술적 역량 및 발전가능성(30%), 두 번째, 작품의 예술적 발전가능성(40%), 마지막으로 연구 및 창작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30%)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1차 서류심사에서 통과된 9개 작품을 가지고 2차 인터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인터뷰심에서는 창작구현에 대한 극작가와 작곡가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일부 작품의 최종 선정에 있어 치열한 논의를 거쳤으며, 차년도 쇼케이스를 준비하게 될 5개 작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신청인명 가나다순)

1. 눈물은 두 눈으로 흘린다 (극:박지선,작:민유리)
2. 3과 2분의 1 A (극:신성우,작:양상진)
3. 타운 살루스 (극:이난영,작:김천욱)
4.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극:김종원,작:현석주)
5. 이상의 날개 (극:조정일,작:황성곤)

금년도 지원신청 작품에는 극에 대한 소재가 중복된 작품도 있었으나 비교적 다양한 소재로 지원신청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소재의 편중을 피하기 위해 역사적인 소재물, 타 원작의 소재, 창의적인 소재물 등 다양한 소재에 기회를 주려고 하였습니다. 중복된 소재인 지원신청

작품에 대해서는 작가적 의식이 작품에 반영되고, 앞으로 쇼케이스를 통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작품인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습니다.

지원신청 작품 중 비교적 예민한 소재와 내용으로 이루어진 작품도 있었지만, 다양한 소재를 다룬다는 점에서 오히려 오페라 소재의 다양성을 넓히고, 여러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오페라와 다른 타 장르의 극음악은 저마다의 특징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예술의 영역은 무한하고,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혼합 표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극음악의 장르마다 본질적인 영역과 성격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창작오페라에서 어떤 유행적인 스타일 또는 대중성만을 따라가려는 작품의 경향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하여, 타 장르와 모호해질 수 있는 작품보다는 창작오페라의 본질적인 영역과 성격을 깊게 탐색하는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작품 소재와 아이디어는 좋으나 오페라 구성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작품은 선정순위에서 멀어졌습니다. 따라서 좋은 작품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오페라로서 극 구성과 내용의 음악적 구현 가능성이 더 높은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시도를 통해 오페라의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음악을 통한 오페라작업의 구현은, 작품 소재에 기인해야 한다는 작곡가의 기본적인 작가적 의식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계획할 작품을 구성하는 시놉시스 단계이다보니,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완성까지는 차치하더라도, 외적인 표현과 구상만 하고 극작가와 작곡가의 명확한 방향성조차 세우지 못한 작품은 못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지원 신청했던 23개 작품 모두 오페라다운 명분을 더욱 찾기를 바라며, 한국 창작오페라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작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2022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심의위원 일동